

‘후발주자도 괜찮다’... 카드사, 차별화로 오픈뱅킹 시장 진출

은행·핀테크, 2019년부터 오픈뱅킹 차별화 서비스·마케팅으로 고객 유치 마이데이터 등 신규사업 추진 발판

카드업계가 오픈뱅킹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금융권 내 오픈뱅킹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후발주자로 참여한만큼 기능의 차별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들이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서비스 참여는 타 업권보다도 길게는 1년반이나 늦게 이뤄졌다. 은행과 핀테크는 이미 2019년 12월부터 실시했으며,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앞선 지난해 말 또는 올 초부터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수는 8024만명, 계좌수는 1억4663만좌로 집계됐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카드업계가 오픈뱅킹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금융권 내 오픈뱅킹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픽스타

사들의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신한·KB국민·우리카드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차별화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먼저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용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오픈뱅킹 도입과 동시에 계좌간 송금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여기에 더해 ▲모든 카드사의 청구대금 결제일을 미리 알려주는 ‘카드 결제일 알림 서비스’ ▲본인 계좌

로 잔액을 모을 수 있는 ‘결제계좌 잔액 보충’ 등 다른 금융사와의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제 신한카드 오픈뱅킹 서비스는 출시 후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틀만에 가입 고객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를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KB페이에서는 단순한 조회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외에도 등록된 계좌에서 KB페이를 통한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오는 9일부터는 KB페이와 리브메이트 앱을 통해 서비스에 등록하고 응모한 이들을 대상으로 골드바와 포인트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카드 역시 타 기관에서 내역조회, 금융서비스 후 결제 계좌조회 및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카드결제금액 선결제 등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말까지 오픈뱅킹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의 카드사들은 롯데카드 6월말, 삼성카드 7월말, 하나카드 8월말부터 계좌 조회 및 출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8월말부터 계좌 서비스를 실시하며, BC카드는 전산개발을 마치는 대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뱅킹 자체만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고객들이 카드사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대금 납부뿐 아니라 여러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픈뱅킹을 발판으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신규사업 추진의 발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중금리 대출 땡큐”... 저축은행 1분기 호조

5개 저축은행 당기순익 2290억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악재도

대형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늘어난 중금리 대출 덕에 올 1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에 따른 악재로 상승세를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7일 금융권 업계에 따르면 SBI·OK·폐퍼·웰컴·한국투자 등 자산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2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516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06% 증가한 수치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으로 6342억원을 거두면서, 전년보다 1599억원(33.71%) 증가했다.

각사별로는 SBI저축은행이 1분기에 8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681억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27.02% 늘었다. 특히 OK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776억

〈상위 5개 저축은행 1분기 당기순익〉

	2020년 1분기	2021년 1분기
SBI	681	865
OK	395	776
폐퍼	-17	152
웰컴	271	298
한국투자	186	199

/저축은행중앙회, 각사

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면서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다. 폐퍼저축은행은 152억원을 거두면서 흑자전환했으며, 웰컴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각각 전년보다 27억원(9.96%), 13억원(6.9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호실적의 배경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중금리 대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신규 공급액은 8조

7853억원으로 전년보다 71.3% 늘었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잔액은 10조 3057억원으로 2019년 4조 6000억원 수준에서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중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올 1분기까지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순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전체적인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연쇄적으로 금리 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결국 예대마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에 대출 증가율을 21.1%로 제한한 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석 기자

교보생명, 고령자 유병력자 상품 확대

다양한 건강보장 결합 종신보험

교보생명이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품을 강화한다.

교보생명은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다양한 건강보장을 결합한 간편심사 종신보험이다. 3가지 질문에 답하면 간소화된 계약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조건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이다.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사망은 물론 일반적질병(GI)도 평생 보장한다. GI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80%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받아 의료비나 생활비로



교보생명이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

활용할 수 있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은 물론, 말기신부전증·말기간/폐질환·루게릭병·다발성골절·중증세균성수막염 등 12종에 이르는 주요 질병도 보장한다. 특히 3대 질병은 정도에 관계없이 해당 질병코드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표적항암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혈전용해치료, 루게릭병·특정파킨슨병, 대상포진·통풍, 생활습관병, 주요법정감염병, 각종 입원·수술 등도 지원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6703명 배출

불완전판매 한 건도 없어야

삼성화재가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삼성화재는 2021년 손해보험업계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6703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업계를 통틀어 최대 인원이다. 손보사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 이상이 삼성화재 소속인 셈이기도 하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특히 손보업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도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모집한 보험계약의 13회차 유지율도 90%를 넘어야 한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 배출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왔다.

PC와 태블릿 기능이 합쳐진 갤럭시북을 활용한 업계 최초 24시간 디지털 영업지원시스템 구축했다.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담긴 ‘알파랩’을 통한 고객상담도 지원한다.

/백지연 기자

하나은행

IRP 손님 감사 이벤트

하나은행이 6월 30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IRP 하나로 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형 IRP 신규 가입 손님 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이전하는 손님이 대상이다.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 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유리 기자 yul115@

리브엠, ‘5G 든든 30GB 요금제’ 출시

KB국민은행, 선착순 3000명 판매

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은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5G 전용 상품인 ‘5G 든든 30GB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5G 든든 30GB 요금제’는 월 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음성은 300분, 문자는 100건을 제공한다. 기본요금은 월 4만 4500원이다. 별도 금융 할인실적과 관계없이 월 5500원의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돼 월 3만 9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요금제는 선착순 3000명에 한해 한정판매를 진행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내외로 데이터

가 부족하거나 10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량 대비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5G 든든 30GB 요금제’는 국내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5GB 내외 수준을 감안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하면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실제 고객의 수요에 맞춘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